

# 저당·저단백·저칼로리... 푸드테크, 必 건강시대 '대세'

>> 1면 '혈당 낮추는 쌀...'서 계속

**CJ제일제당 '햇반 저단백밥' 출시**  
**대상웰라이프 '뉴케어 당플랜' 판매**  
**한국야쿠르트 '당 줄이기' 캠페인**



신라면건면(위 왼쪽부터 시계방향), 햇반 저단백밥과 혈당강하쌀. /각사

대학병원과 국내 5성급 호텔 출신 셰프와 협업해 각 질환에 최적화된 반조리 또는 도시락 식단을 직접 개발해 판매 중이다. 설탕과 백미, 밀가루는 빼고 천연재료를 활용해 식단을 구성한 게 특징이다. 한편 닥터킴은 지난 2월 카카오펀더스, 미래에셋벤처투자 등으로부터 5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09년 단백질 제한이 필요한 선천성 대사질환자를 위한 '햇반 저단백밥'을 출시했다. 햇반 저단백밥은 일종의 재능기부형 제품이다. 체내에 단백질 대사과정에 필요한 효소들의 일부가 결핍되어 단백질이 합

유된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희귀질환자를 위해 일반 햇반(쌀밥)에 비해

단백질 함유량을 약 10%로 낮춘 가능성 햇반이다.

대상웰라이프도 지난해부터 당뇨 환자용 영양식인 '뉴케어 당플랜'을 홈쇼핑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뉴케어 당플랜'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이 함유된 영양식으로 당뇨 환자를 위해 제작됐으나 일반인도 먹을 수 있는 제품이다. 베지밀로 유명한 정식품도 '그린비아 플러스케어' 당뇨식을, 매일유업은 대웅제약과 함께 '메디웰 당뇨식' 등을 선보이고 있다.

◆ '필(必)건강' 시대...건강에 초점

2016년에 태어난 아기를 기준으로 기대수명 82.7세를 기록하며 대한민국은 세계 장수국가 9위에 올랐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닌,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필수 요소가 됐다. 이 같은 중요도에 따라 업계는 건강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제품을 끊임없이 선보이고 있다. 신기술을 적용

해 당도를 낮춘 야쿠르트부터 튀기지 않은 면을 사용한 라면까지 평소 마음 편히 즐기지 못했던 음식들을 건강하게 바꾸고 있다.

한국야쿠르트는 오직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업계 최초로 '당 줄이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2014년 대표 브랜드인 '야쿠르트'의 당 함량을 50% 낮춘 저당제품인 '야쿠르트 라이트'를 출시하고 '월 저지방' 등 발효유 전 제품의 저당 제품을 선보이며 고객의 건강한 습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

농심은 기름에 튀기지 않은 면을 사용한 '신라면 건면'을 출시했다. 농심 관계자는 "건강에 관심이 높아져 라면 섭취가 줄어든 소비자를 위해 건면으로 영역을 확장했다"고 전했다. 농심 연구소는 칼로리는 낮추고 신라면 고유의 맛을 살리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건면 개발에 힘썼다. 건면 제품의 칼로리는

오리지널 신라면 열량의 70% 수준인 350kcal다. 신라면 본연의 맛을 내기 위해 소고기엑기스를 재구성했으며, 표고버섯을 보강해 감칠맛을 더했다. 또한 유당면 제품과 비교해 부족할 수 있는 면과 국물의 조화를 끌어올리기 위해 별도의 조미유를 첨가했다.

대상 청정원은 곤약을 쌀 모양으로 가공한 '곤약즉석밥' 2종과 '밥이 될 곤약' 1종을 판매하고 있다. 곤약쌀은 일반 백미보다 씹는 맛이 좋고 칼로리가 낮은 게 특징이다. 곤약즉석밥은 귀리 곤약즉석밥 기준으로 개당 칼로리가 일반 밥의 절반수준인 105kcal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들 역시 건강을 우선하는 소비행태가 확산되고 있다"며 "대체 감미료 또는 저당 등 건강과 관련된 제품 출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최종구 금융위원장(가운데)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 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권 국민제과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에서 현황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 잠자는 출자·배당금 3700억 "온라인서 쉽게 환급 받아요"

**금융위, 상호금융 활성화 간담회**  
금융결제원 '내계좌 한눈에' 홈페이지 출자금 등 조회·계좌이체 서비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상호금융권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상호 금융기관이 농·어촌 거주자와 저신용자 등 상대적으로 금융이용이 어려운 계층에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아왔다"며 "빠르게 진화하는 정보통신기술(IT) 환경에 맞춰 상호금융기관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선안에 따라 금융위는 상호금융기관의 출자·배당금을 편리하게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전산체계를 마련한다. 기존에는 출자·배당금을 환급 받거나 장기 미거래 예금을 인출해야 할 경우 점포를 방문해야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상호금융기관에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배당금은 총 1574계좌로 36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소비자는 금융결제원의 '내계좌 한눈에(아카운트 인포)' 홈페이지를 통해 출자금과 배당금을 조회하고 본인 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최 위원장은 "한계좌당 보면 2만3000원으로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전체 금액으로 보면

상당한 수준"이라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출자금 배당금 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호금융조합의 예·적금 금리산정체계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상호금융조합에 중도해지이율 산정식이 없어 조합마다 임의로 중도해지이율을 산정해왔다. 만기 후 이율도 통일된 기준이 없어 조합마다 다르게 적용됐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은 가입기간을 고려한 중도해지이율 산정체계를 도입해 예·적금 가입기간이 길어질 수록 중도해지이율이 상승할 수 있게 한다. 만기 후 이율도 정비해 정기예금과 적금 간 지급수준도 같게 한다. 예컨대 농협의 경우 지금까지 만기 후 이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만기 후 6개월까지 약정이율의 50%를 지급해야 한다.

상호금융권의 자체 채무조정제도도 마련한다. 상호금융은 저신용, 단독 채무자 대출이 많아 다중채무자 중심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보다는 자체 채무조정이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상호금융기관은 연체 발생 전 취약약주, 단기연체자(연체 3개월 미만), 장기연체자의 상황에 맞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일시상환 대출의 분할상환 대한, 장기연체자 원금감면 조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주 52시간제 도입 1년... 직장인 84% 만족

**직장인 등 895명 대상 조사**  
만족도 사무직 89% 전문직 84%  
인사담당자 93% '어려움 있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된 주 52시간 근로제가 이달 도입 1년을 맞았다. 직장인들은 대체로 '삶의 질이 높아졌다'며 제도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으나, 업종별로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크루트가 직장인 622명과 기업 인사담당자 273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만족도는 높았으나, 인사담당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먼저 직장인 대상 '지난해 7월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라 출퇴근 시간 등 업무시간이 조정되었나'고 묻은 결과,

28%가 '그렇다', 나머지는 '아니다'를 선택했다. '그렇다'는 응답자는 대기업 재직자(60%)가 많았고, 중견기업(37%), 중소기업(18%)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달라진 근로시간이 삶의 질에 끼친 영향'에 대해 '조금 좋아진 편이다'(66%), '매우 좋아진 편이다'(18%) 등 긍정적인 답변이 84%로 높았다. '단축 이전이 좋았다'(14%), '단축 이전보다 급격히 안 좋아졌다'(2%)는 의견도 있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이 근로시간 단축 이후 삶의 질이 나아졌다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직군·업종별 차이를 보였다. 교차분석 결과 만족도가 가장 큰 직군은 '사무직'(89%)이었고, 이어 '전문직'(84%), '관리직'(82%), '서비스직'(76%) 순이었고, '제조직'(67%)만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업종별로는 '고객상담·리서치'(100%) 분야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 '유통·판매'(94%), '교육·강사'(93%) 순으로 평균을 웃도는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근로시간 단축 이후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부정적 답변 비율은 '외식·부식·음료'(43%)가 가장 높았고, '문화·여가·생활'(25%), '생산·건설·운송'(22%) 순이었다.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으로 어려운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93% 이상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어려운 점으로는 '업무량 조절'(33%), '유연근무제도 도입 및 근태관리'(32%), '변경된 급여내역 처리'(20%) 등이 꼽혔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량 조절과 유연근무제 안착, 이에 따른 근태 관리, 급여 변경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용수 기자 hys@

## 5월 경상수지 49.5억 달러 '흑자 전환'

한은, 수출 480억 달러... 10.8%↓  
상품수지 흑자 64개월 만에 최저

지난 4월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던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흑자 전환했다. 그러나 세계 교역량 감소와 반도체 단가 하락으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64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9년 5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5월 경상수지는 49억5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지난 4월 7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6억6000만달러)를 기록하며 83개월간의 흑자 행진이 멈췄던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다시 흑자로 돌아선 것이다.

하지만 흑자폭은 지난해 5월(84억3000만달러)과 비교해 34억8000만달러(41.3%) 줄었다. 수출이 부진하면서 5월 상품수지(53억9000만달러)가 2014년 1월(36억7000만달러) 이후 5년 4개



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107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1년 새 반 토막났다.

상품수지가 크게 줄어든 것은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5월 수출은 480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8% 감소했다.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감소폭은 2016년 4월(-91억7000만달러) 이후 37개월 만에 최대, 감소율도 2016년 4월(-18.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소상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갈등,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상품수지 흑자가 대폭 축소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6년 4월은 유가 하락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동시에 수요도 줄어 세계 경기가 안 좋았던 때"라고 설명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경상수지가 상반기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희주 기자 hj89@